

무주택자 청약 가점 따져보고 계획 짜야

달라진 부동산 시장 ... 내집 마련 대책

기존 아파트 살 때는 대출·양도세 유의

정부가 조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주택자의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이 청약과 대출, 세금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총망라된 상황이라 매도자와 매수자, 다주택자의 본격적인 '눈치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내집 마련에 유리...청약시장 '가점' 따져보고 계획짜야=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는 이번 대책이 청약제도를 개편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의 청약시장 진입을 사실상 배제하고 장기 무주택자가 유리해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의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은 100% 가점제로 분양하도록 했고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적용 비율을 50%로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점이 높은 사람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점수를 매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무주택자는 자신이 보유한 청약 통장을 활용해야 한다"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분양하는 등 이제 가점 경쟁을 해야 하므로 본인 가점부터 계산해본 뒤 가점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신규 매입 시 "대출·양도세 유의해야"...매수 타이밍 조절도 필요=전문

가들은 무주택자가 청약시장 대신 기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경우 대출과 양도세를 잘 따져보고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여도 양도세 부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요건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된다.

기존 주택을 고를 때는 '질세 매물'을 노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무주택자들은 매입 시점을 늦추는 게 좋다.

◇다주택자 세금 혜택 받으려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간 길수록 유리=이번 정부의 메가톤급 부동산대책으로 다가구 주택자는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계 당국은 다주택자는 실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정부는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4년짜리 단기 임대를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기회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5일 내외이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도 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4년은 일반 임대, 8년은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한번 선택하면 중도에 바꿀 수 없었는데 정부는 앞으로 일반을 준공공으로 중도에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향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98.75 (+3.30)
- ↑ 금리 (국고채 3년) 1.77% (+0.03)
- ↑ 코스닥 648.39 (+6.81)
- ↑ 환율 (USD) 1127.10원 (+2.10)



삼성전자 3도어 스텐드형 김치냉장고 'M7000'



동부대우전자 2018년형 클래식 다목적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뜨거운 1등급 경쟁

삼성전자·동부대우전자 절전형 신제품 출시

올해 강화된 에너지효율기준에 맞춰 가전업체들이 발빠르게 새 김치냉장고를 내놓고 있다. 쌀쌀한 김장철이 성수기인 시장이지만 한여름부터 신제품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최근 강화된 새로운 등급 기준에 맞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김치냉장고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3도어 스텐드형인 M7000 시리즈 15종과 뚜껑형 M3000 시리즈 16종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최대 28%까지(M7000 24%, M3000 28%) 연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들도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메탈그라운드 기술이 적용돼 한겨울 땅속의 김치 보관 환경을 똑같이 구현하고 ±0.3℃의 뛰어난 정온유지 성능을 보여준다. 삼성 김치냉장고 M7000은 3도어 스텐드형 제품으로 컵바·선반·도어·룸바 4면에 메탈 소재가 적용됐으며, 총 13 단계(김치6단계+식품7단계)의 김치·식품 맞춤형 보관 모드를 지원한다.

제품 가격은 M7000(스텐드형)은 327

ℓ 단일 용량으로 세부 모델별 출고가 180~380만원이고, M3000(뚜껑형)은 126~221 ℓ 까지 다양한 용량과 세부 모델에 따라 출고가 기준 58만원~155만원이다.

동부대우전자도 한 달 전력 소비량이 8.7kwh/월에 불과한 2018년형 초절전 클래식 다목적 김치냉장고를 출시했다. 회사 측은 신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화된 냉기 제어기술과 냉동고용 고효율 단열재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1도어 스텐드형 제품의 경우 102 ℓ 용량에 기존 대용량 김치냉장고 대비 4분의 1 수준, 작은 크기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내놓은 제품은 102 ℓ 소형 스텐드형 5개 모델과 117~216 ℓ 뚜껑형 제품 5개 모델로 신제품 가격은 스텐드형 제품 60만원대, 뚜껑형 제품 50~70만원 수준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제3회 메세나 나눔 뮤지컬 공연

'우리는 친구다' 어린이 등 2700여명에 선물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3회 메세나 나눔행사 '우리는 친구다'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성료됐다.

광주은행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높은 완성도와 재미로 12년간 대학로 극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우리는 친구다' 어린이 뮤지컬 공연으로, 광주 공연 3일 동안 2700여명의 지역민과 어린이들이 무료로 공연을 관람했다.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기관 어린이들을 초대해 문화적인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됐다.

또한 관람을 위해 뮤지컬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색연필과 인형을 증정하고 포토존을 설치해 즉석사진을 선물하는 등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공연 이외에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에는 광주뿐만 아니라 순천에서도 무료 공연을 준비해,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오후 2시와 5시,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등 총 4회 공연으로 순천지역 지역민들과 어린이들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숙경 광주은행 사회공헌실장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광주은행 메세나 나눔 문화공연이 지역민들과 어린이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오는 17일과 18일 순천에서 진행되는 공연에서도 전남지역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 광주은행장이 지난 3일 광주은행 본점 3층에서 개최한 '우리는 친구다' 어린이 뮤지컬 공연 전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김은희 광주은행의 김정팀장은 "광주상의 학력과 연령별로 구분해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지역 및 기관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에 발 맞추어 초·중학생을 위한 포토샵과 클라우드 웹 마스터, 빅데이터 분석사 등을 검증시험 영역으로 제한한 상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상의, 국가기술 자격시험 인구대비 응시율 3.6%... 전국 1위

50년 검증시험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인구 대비 높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율을 기록하는 등 모범적인 운영으로 주목 받고 있다.

광주상의는 7일 국가자격검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5만3000여명의 수험자가 응시, 인구대비 응시율 3.6%로 전국 72개 중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수험환경 개선

과 새로운 검정시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성과 순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상공회의소 자격시험을 적극 홍보하고, 수험용 컴퓨터 전면 교체, 음료·휴대폰충전 서비스 제공 등 수험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3개 종류의 자격시험

을 학력과 연령별로 구분해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지역 및 기관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은희 광주상의의 김정팀장은 "광주상의가 시행한 컴퓨터 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은 올해까지 총 100만여 명이 응시해 사무직군의 필수 취득 자격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코딩(프로그래밍)과 디자인·영상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자격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수험자의 편의와 빠른 자격취득을 돕기 위해 상시시험(월중 25일 이상 개설, 시험일 4일 전까지 접수 가능)을 운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2분기 휘발유·경유 소비 6300만 배럴 '사상 최대'

저유가 기조에 연휴가 겹치면서 2분기 휘발유·경유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2017년 2분기 국내 석유수급 상황에 따르면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는 각각 2000만배럴, 4300만배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3.8% 늘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산업부는 저유가 지속, 5월 황금연휴에 따른 교통량 증가, 차량 대수 증가가 원인이 라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산업 호황에 따른 원료 수요 증가로 2분기 납사(나프타) 소비도 1억 600만배럴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호텔 수영장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텐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